



危機를 克服하는 智慧

—핀치에 강한 指導力 培養—

李 相 運

〈全經聯 理事〉

요트에 세사람의 승무원이 있다. 바람이 잔잔하고 순풍에 돛을 달고 멋있게 달릴 때는 세 승무원의 실력은 알수 없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악천후일때 비로서 누가 배에 익숙해 있고 키를 잡을 수 있으며 유능한 승무원인가를 알게된다.

봄날 따뜻하고 조용할때 개울에 물오리는 멋있는 놀이를 하고 자기과시를 하게된다. 그러나 비소나기가 퍼붓고 억수같은 비가올때면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수가 있다. 일단 위기를 만날때 克服하는 지혜가 없는 代表的 表現이다.

일핏보아 순풍에 돛을 달고 있는 會社라도 內部에서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여러가지 「핀치」(重大危機)를 겪고있는 것이다. 製品에 事故가 있었다던가 去來處에서 제품에 대해 缺點을 지적한다던가 工場에서 不合格品이 急增한다던가 勞使關係가 갑자기 惡化한다던가, 會社情報나 機密이 크게 누설된다던가 아니면 상사들에 대한 不信感이 격증한다던가 하는 「핀치」이다. 組織의 變革을 導入한다던가 價值分析이라는 새로운 管理技術을 끌어 들일경우도 會社에 있어서 는 하나의 「핀치」이다.

이와같이 어떤 會社거나 組織에 있어서 크건 작건간에 「핀치」가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大小間의 핀치에 이겨내는 人物이나 指導力이 크게 必要하고 克服해내는 지혜가 切實히 要 望되는 것이다. 그런데 組織이나 會社가 순조롭고 잘 될때에는 진짜 人間의 能力이나 本質을 알아보기 힘들다. 위에있는 사람은 「핀치」에 當面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핀치」를 克服할 수 있는 참으로 有能한 人材로 平素부터 발굴해야 되고 克服하는 지혜를 배양시켜야 한다.

第2次大戰中에 「버어마」에 원정해간 日本軍

이 이기고있을 동안에는 軍隊의 規律도 바르고 上사예의 尊敬心도 강하며 팀·워크도 잡혀서 愛國心을 發揮하고 있었다. 그런데 敗戰의 氣色이 농후해져 퇴각하기 시작하자 전부 「에고이스트」가 돼버리고 軍規나 「팀·워크」따위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됐다. 自己의 生存을 위해서 어떻게 도망칠까 어떻게 해서 먹을것을 찾아낼것인가 하는데에만 몰두하게된 것이다.

하나의 조직이 위기에 당면하게 되면 자칫 인간은 에고이스트로 되기쉽고 그때문에 더욱더 조직의 붕괴를 빠르게 하는것이다. 핀치에 강한 사람은 회사의 위기적인 상태에 直面해서도 組織의 忠誠心을 잃지않고 결코 「에고이스트」가 되지 않는다.

또한 핀치에 강한 사람은 앞에 가로막은 벽을 돌파하는 하나의 「포인트」를 지각할수 있는 사람이다. 그사람의 提案이 그 會社. 그 조직의 벽을 깨치는데 有效하기만 하다면 그사람이 제안한 해결안에 다른 사람들이 자연히 따라가게 된다.

그 「그룹」이 당면한 위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잡을수 있는 사람이 위기에 직면해서 士氣를 잃고있는 여러사람을 고무시키고 모으고 이끌어 나갈 힘을 갖는 것이다.

平素에 이와같은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튼튼한 리더십이나 미들매니지먼트는 指導力을 培養시키는데 最大力量을 기울여야 한다.

그 指導力이란, 핀치에 克服할수 있는 지혜란 첫째 사람을 불출알고 둘째 사람을 育成하고, 셋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세가지 行動力이라고 생각한다. 危機를 克服하는 지혜의 「패턴」을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고 定着化시키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